수입차 부품 가격 외국보다 최대 2.5배 비싸

헤드램프 獨서 91만원, 한국선 224만원

독점적 수입·유통 구조
고가 마케팅 가격 결정 탓
소비자모임 5개 차종 분석

국내 수입차 부품 가격이 외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을 받아 수입 자동차 5개 차종의 6개 부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30개 부품 중 23개 부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외국(독일·미국) 평균 가격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크라이슬러 300C는 6개 부품 모두, 아우디 A6와 벤츠 E300은 5개 부품, 렉서스 300h는 4개 부품, BMW 520d는 3개 부품이 해외 평균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비쌌다. 렉서스 300h 앞 펜더의 경우 국내 판매가는 69만1000원으로 독일(27만6000원)보다 2.5배, 미국(39만4000원)보다 1.8배 비쌌다. 헤드램프(224만9000원)는 독일(91만5000원)과 미국(109만5000원)과 비교해 각각 2.5배, 2.1배 가격이 높았다.

벤츠 E300은 한국에서 앞 범퍼(71만8000원)와 뒤 범퍼(88만6원)가 수입국인 독일(51만원·62만9000원)보다 각각 1.4배 비싸게 팔리고, 헤드램프(295만1000원)는 독일(230만원)보다 1.3배, 미국(168만5000원)보다 1.8배 비쌌다.

2000cc 동급 중형차 기준으로 자동차 가격은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평균 2.9배 비싸지만, 부품 가격은 4.6~6배 더 나갔다.

아울러 국산·수입 자동차 9개 차종 30개 부품의 국내 판매가를 조사해보니 정비업소 유형에 관계없이 가격이 비슷하고, 수입차 부품은 일부 일반 정비업소 가격이 공식 업소보다 비쌌다.

국내에서 수입차 부품이 비싼 것은 독점적인 수입·유통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설명했다. 브랜드별로 독점적인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부품을 수입하고, 정해진 공급업체를 통해 파는 구조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업체의 고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순정부품 외에도 대체부품 등의 유통을 활성화해 부품 가격을 내리고, 수입업체가 적정한 유통 마진을 책정해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인터넷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제도'에 대해 차량 소유자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부품 가격 확인이 어렵다고 답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현대차 중형버스 카운티

현대차 트럭 마이티

"상용차 미리 사두자"

배출기준 강화 '유로6' 적용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올라

유지비도 연 100만원 늘 듯

내년부터 디젤 연료를 쓰는 총중량 3.5t 이상의 트럭과 버스, 특장차 등 상용차 가격이 최소 1000만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민 운수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차량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지난달 대형 트럭 계약대수(2.5t 이상 모델 기준)는 3590대로, 지난해 11월의 2099대보다 71% 급증했다. 타타대우상용차의 판매 실적도 지난해 10월 569대에서 올해 10월에는 616대로 늘었다.

대형 트럭 수요가 늘어난 것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총중량 3.5t 이상의 디젤 차량에 대해 '유로6'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t 트럭인 현대차의 포터와 기아차의 봉고트럭은 2016년 9월부터 적용된다.

유로6가 적용되면 미세먼지(PM)는 현 규제보다 50%, 질소산화물(NOx)은 80% 이상 줄여야 한다.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량은 2.0g/kWh(킬로와트시)에서 0.4g/kWh 이하로 낮아지고, 미세먼지는 0.02g/kWh 이하에서 0.01g/kWh 이하로 강화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차는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업계는 차량에 SCR(선택적 촉매저감장치)을 비롯해 대당 가격이 500만~700만원에 달하는 DPF(디젤 분진 필터) 등을 장착할 예정이어서 차량별로 최소 1000만원 넘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중형 화물차로 인기가 많은 마이티 2.5t의 가격은 현재 3720만~377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000만원 후반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대형 트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유로6를 적용한 유럽에서도 대형 트럭 가격은 평균 1600만~17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늘어난다. 유로6를 적용받는 차량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수소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해 유지비가 지금보다 매년 1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화물 차주들이 유로6가 아닌 유로5가 적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화물차주들은 내년에라도 유로5 기준에 맞춰 올해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살 수 있다. 유로6가 적용되더라도 올해 생산된 차량에 한해 판매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 연말까지 유로5 기준에 맞춰 생산된 트럭은 내년 1월1일 이후에도 180일까지, 버스는 90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제조사들의 재고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버스·화물 운송업계는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수입이 줄어들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유로6 적용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 안된다"

행자부 법개정안 입법예고에 업계 강력 반발

행정자치부가 렌터카에 대해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자 렌터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렌터카 대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업체들은 대여기간 1개월 이상인 렌터카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예컨대, 렌터카업체가 주로 보유한 2000cc급 차량의 경우 cc당 세율은 19원에서 260원으로 올라간다. 렌터카업체들은 보험가입 등 각종 규제 비용 때문에 그동안 자가용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자동차세가 증세되면 연간 납부 세액은 현재의 10배인 2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국내 렌터카 업체는 10월 말 기준 930여곳(42만대)이며 연간 매출액은 3조5000억원, 당기순이익은 1500억원 정도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의 박상광 팀장은 "자동차세를 인상하면 업계의 연간 당기순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아진다"면서 "렌터카산업 전체를 적자구조로 만들어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도 법인 등에 1개월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데도, 렌터카에만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특히 행자부가 지난달 4일 영업용자동차에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렌터카에만 또다시 증세를 추진하자 분개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내리막 주행시 중립(N) 변속 안해도 연료 차단

Q)자동 변속기를 탄력주행이나 내리막 주행 시 N(중립)으로 변속하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나요?

A) 정속주행이나 내리막 주행 시 액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자동으로 연료가 차단되므로 굳이 D에서 N으로 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신호 대기시 N으로 변속하는 것은 연료절감에 조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전문가 의견) "액셀레이터만 밟지 않으면 연료는 자동 차단됩니다. 연비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면 굳이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호대기 중 중립으로 기어를 변속해도 아주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은 대부분 연비절감을 위해 오토스탑(신호대기시 시동이 바로 꺼지고 출발시 바로 시동이 걸리는 기능)을 장착하는 추세입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신축원룸 매 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 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융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1억5천, 융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융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382-55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융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가임대(5층)
학원 운영
하실 분
올리모델
시설완비
지하주차장
8대 가능
임대료저렴함
(보3천 150만)
상무지구 상가
5층 임대100평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초 개강(금,토)
기본반 · 고급반
최고실전반 · 평생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새대
교육화 실전가능
010-6832-9700
062)526-8253

경매교육
한국경매학원
상무지구 12월8일 개강
매월 초 월요 개강
평생 최고의
실전반 모집중
(입찰부터 매매까지)
010-6670-9800
062)382-55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서구 화정동 (토 171㎡,건 501㎡) 감정가 2억7천 최저가 1억9천
② 서구 화정동 (토 372㎡,건 1255㎡)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③ 동구 동명동 (토 838㎡,건 2190㎡) 감정가 17억 최저가 11억
④ 서구 치평동 (토 1599㎡,건 17380㎡) 감정가 223억 최저가 156억
⑤ 장성군 삼계면 (토 1068㎡,건 631㎡)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⑥ 동구 대인동 (토 105㎡,건 106㎡) 감정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⑦ 남구 백운동 (토 315㎡,건 635㎡) 감정가 5억 최저가 3억5천
⑧ 북구 문흥등 (토 216㎡,건 353㎡)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
⑨ 북구 문흥동 (토 193㎡,건 338㎡) 감정가 2억3천 최저가 1억6천
⑩ 동구 계림동 (토 445㎡,건 1558㎡) 감정가 10억 최저가 7억5천
토 지
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정가 45억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②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면 41억
특수물건(공사중 건물 동구 용산동)
① 동구 용산동 (토 1316㎡) 감정가 16억2천 최저가 11억3천
현재 건물 공사중 중단됨(투자적합)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자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